

※본 정보는 특정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건강과학정보이며 광고/홍보의 목적이 아닙니다.  
 ※본 내용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릴 수 없으며, 편집/재가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Scalp Care for Fine Dust

## 황사와 미세먼지의 두피 습격

봄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황사와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를 켜고 이중 세안까지 신경 쓰지만 쉽게 놓치는 곳은 바로 두피입니다. 미세먼지가 두피 모공을 막아 피지와 노폐물이 뒤섞이는 오염이 지속되면 냄새, 가려움, 탈모로 이어질 수 있죠.

올봄, 마스크로도 가릴 수 없는 두피를 위해 스칼프 안티 더스트 케어를 시작해보세요.



더다양한 이야기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

# 01

## 미세하지만 강력한 외부 자극

대기 중 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와 공장 등 화석 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매우 작은 오염 입자입니다.

황사는 모래 성분이지만 미세먼지는 황산염, 유기 화합물, 중금속 등을 포함합니다. 크기는 작아도 다양한 화학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두피 환경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크기 비교



※참고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Particulate Matter (PM) Basics  
<https://www.epa.gov/pm-pollution/particulate-matter-pm-basics>

### 작은 입자와 높은 부착력

미세먼지에 포함된 지용성 물질은 두피 피지에 쉽게 달라붙고 일부는 모낭 입구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 피지와 결합한 산화

두피 피지와 오염 물질이 만나면 끈적임과 냄새의 원인이 되는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02

## 미세먼지·황사·노폐물 동시에 쌓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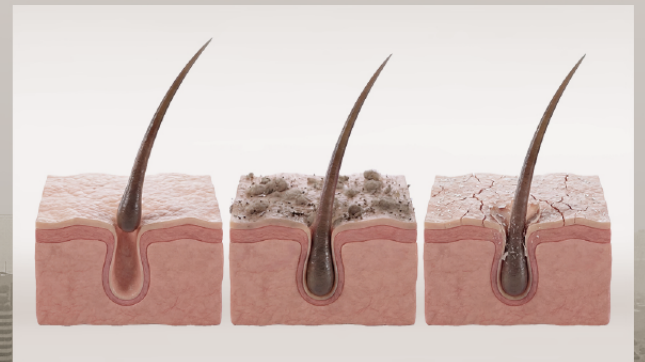
미세먼지와 황사, 그리고 각종 노폐물은 일상에서 쉽게 두피에 닿는 요소들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두피에 축적되면 단순한 오염을 넘어 유수분 균형과 장벽 기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모낭 기능 저하 및 탈모 위험 증가

접촉성 자극으로 인한 가려움

두피 장벽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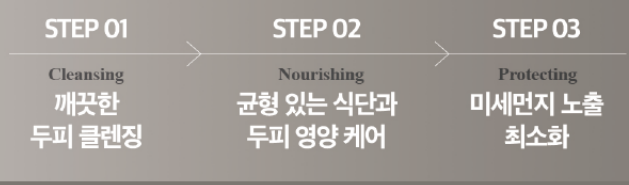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

# 03




## 지친 두피를 위한 3-STEP 케어 루틴

두피에 부담을 주는 환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우고, 채우고, 보호하는 **3단계 루틴**이 중요합니다.  
두피 역시 피부처럼 컨디션이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는 건강한 두피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케어의 시작 **샴푸부터 확인**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와 피지를 제대로 씻어내는 것이 **안티 더스트 케어**의 시작입니다. 미세먼지 세정에 적합한 샴푸를 고르는 것만으로도 두피 건강에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p>인체적용시험으로 미세먼지 세정력이 입증된 샴푸인가요?</p>	 <p>건강한 두피와 유사한 pH의 약산성 샴푸인가요?</p>	 <p>자극 받은 두피 케어를 위한 영양 성분이 함유되어 있나요?</p>
--	---	---

※ 상기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가이드이며, 특정 제품과는 관련이 없음

# 04

## 미세먼지 놓치지 않는 샴푸 루틴

샴푸를 잘 선택했다더라도 충분히 세정하지 않으면 모발과 두피에 미세먼지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샴푸 가이드를 통해  
두피와 모발 사이 먼지까지 말끔하게 씻어내세요.

### 프리 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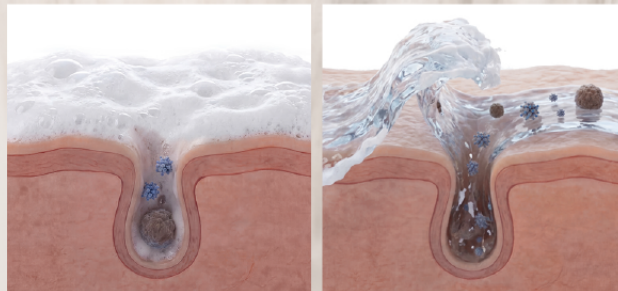
샴푸 전 머리를 빗고 미온수로 1~2분간 충분히 적셔주기

### 이중 세정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가볍게 1차 세정 후 2차 세정에  
두피 중심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 저녁 샴푸

낮 동안 쌓인 미세먼지가 밤새 두피 모발을 자극하지 않도록  
자기 전 샴푸하기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

※ 위 가이드는 특정 두피 인체적용시험 등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일상에서 실천하기 쉽도록 현재까지 알려진 연구를 바탕으로 추천하는 관리 방법입니다.

# 05

## 채우고, 보호하고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건강하고 깨끗한 두피는 유효 성분이 작용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샴푸 후에는 **두피 세럼**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습관까지 꼭 잊지 마세요.

### 1 두피 장벽 케어

**세라마이드 NP**: 각질층 장벽 강화와 수분 유지에 도움  
**피토스핑고신**: 민감해진 두피 진정과 균형 케어에 도움  
※ 상기 내용은 각 성분에 대해 과학적으로 알려진 특성에 대한 설명이며, 특정 제품과는 관련 없음

### 2 생활 속 보호 습관

미세먼지 노출이 많은 날에는 스카프, 모자를 착용하거나  
머리를 묶어 **두피 노출을 줄여주세요.**

#### \*참고자료

- Son E, Kwon KH. The Invisible Threat to Hair and Scalp from Air Pollution. Polish 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2025;34(2):1745-1753
- Samra T, Lin RR, Maderal AD.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Pollutants and Exposures on Hair Follicle Pathophysiology. Skin Appendage Disord. 2024;10(4):262-272
- Hu R, Xie XY, Xu SK, et al. PM2.5 Exposure Elicits Oxidative Stress Responses and Mitochondrial Apoptosis Pathway Activation in HaCaT Keratinocytes. Chin Med J (Engl). 2017;130(18):2205-2214
- Suo D, Zeng S, Zhang J, Meng L, Weng L. PM2.5 induces apoptosis, oxidative stress injury and melanin metabolic disorder in human melanocytes. Exp Ther Med. 2020;19(5):3227-3238
- Galiano A, Ye C, Su F, et al. Assessing the effect of cleansing products on artificially polluted human hairs and skin through in vivo and in vitro models. Skin Res Technol. 2023;29(1):e13220
- 강진희 외 3명. 미세먼지와 피부. 한국가정의학회. 2014;4(2):116-121
- Lim YS, Nizard C, Pays K, Brun C, Kurfurst R. A Multifaceted View on Ageing of the Hair and Scalp. Cosmetics. 2025;12(6):284
- 위생결. 두피관리 및 사용제품에 따른 탈모예방과 발모 효과성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2020; 21(1). 97-110
- Reddy MB, Guy RH, Bunge AL. Does epidermal turnover reduce percutaneous penetration?. Pharm Res. 2000;17(11):1414-1419